

##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직으로 입후보한 회원번호 320번 김재은입니다.

저는 2003년 입회 후 정규투어를 경험하고 2005년부터 각종미디어를 통해서 골프레슨을 전하며 각종 이벤트 프로 암과 기업 행사와 강의를 매개로 아마추어 골퍼들과 우리후배님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KLPGA회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단체장들을 만나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며, 보고 들으면서 우리 협회가 회원들에게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지 느끼는 점들과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제가 협회에 입회 했을 때 보다는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한 협회입니다.

그 또한 우리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노고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덩치가 커진 만큼 회원들의 후생복지의 혜택도 더불어 균형 있게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한걸음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 보다는 협회 집행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개선해 보자라는 뜻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잘해도 욕먹고, 잘못하면 역적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더군요. 그만큼 많은 회원들을 한 번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고생하신 선배 이사님들의 조언과 감응을 느낀 회원들이 함께한다면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돌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또 잘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작성자 김 재은

